



2017-74

「정치」

에콰도르 대선 (1차 투표) 결과의 의미와 전망

중남미

이태혁 HK 연구교수
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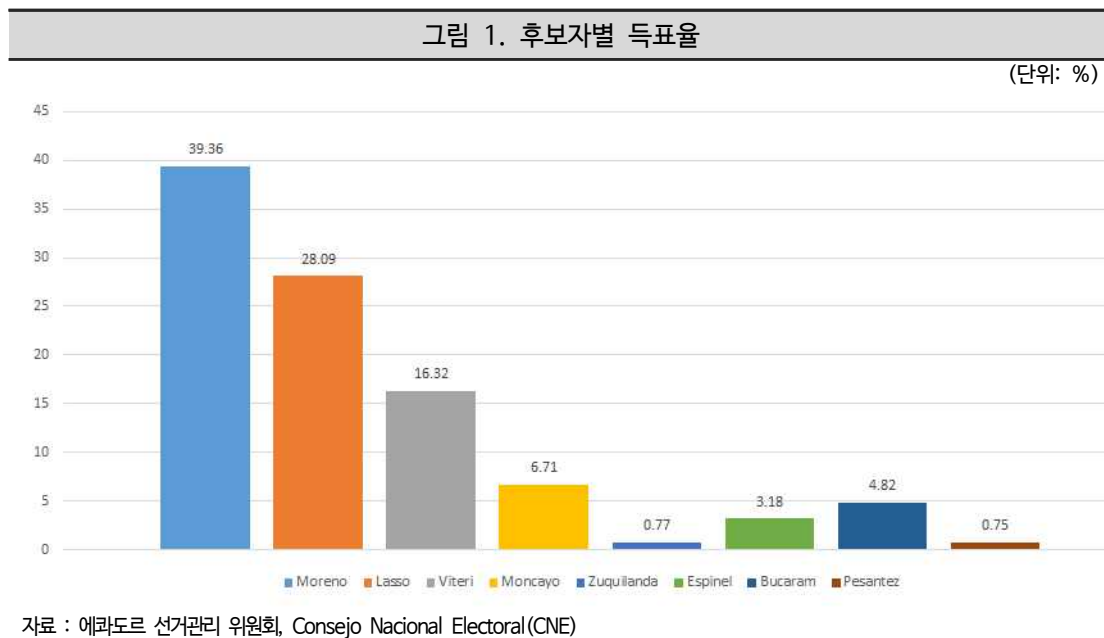
💡 주요내용

- (에콰도르 차기 대권, 결선투표서 결정) 지난 2월 19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, 차기 정부 수반은 오는 4월 2일 결선투표에서 결정됨.
- (강력한 대권 후보 모레노의 1차투표 '성적표'의 원인과 분석) ①모레노 후보의 현 정부의 정치 프로젝트 '시민혁명(Citizens' Revolution)'의 무조건적 계승, ②현 정부 및 모레노 후보의 부정부패, ③경기침체, ④현 정부의 '역설적' 반-원주민 (Anti-Indigenous) 정책에 기인함.
- (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결선투표) 오는 4월 2일 치러질 대선 결선투표는 현재 여론 조사 시 엇갈리는 상황이 전개되는 등 모레노와 라소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전망됨.

1. 이슈 현황

▶ 지난 2월 19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, 차기 정부 수반은 오는 4월 2일 결선투표에서 결정됨.

- 아래 표1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모두 8명이 대선 후보인 가운데 좌파 집권 여당인 국가 연합당(Alianza PAIS)의 레닌 모레노¹⁾(Lenin Moreno) 후보가 39.36%(득표수 3,716,343), 우파 야당 기획창조당(CREO) 기에르모 라소²⁾(Gulliermo Lasso) 후보가 29.09%(득표수 2,652,403)로 대선에서 모레노 후보가 승리함.
- 하지만, 에콰도르 선거 규정상 1차 투표로 대선 결과가 확정되려면 특정 후보가 유효 득표수의 과반을 득표하거나 40%이상을 득표한 가운데 2위 후보와 10%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야함.
- 때문에, 모레노 여당 후보가 라소 야당 후보와의 10% 이상의 격차를 벌렸지만, 득표율이 40%를 넘지 못해 결선투표가 실시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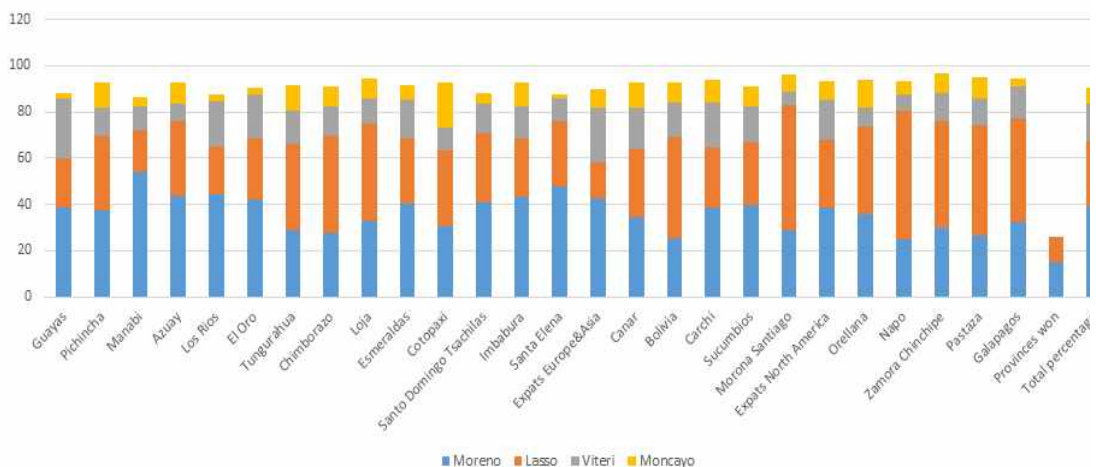


- 1) 1953년 3월 19일생으로 아마존 지역의 오레야나주 출신임. 정치인이자 변호사로 1998년 강도 공격으로 총상을 입은 후 휠체어를 타고 다님. 본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세계 최초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대통령임. 한편, 지난 2006년 에콰도르 대선에서 현 대통령 라파엘 꼬레아와 함께 부통령으로 당선됨. 2013년 국내 공직에서 물러난 후 'UN 장애인 및 접근성에 관한 특사'로 근무하면서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과 인연을 맺음.
- 2) 1955년 11월 16일생으로 과야킬 출신임. 과야킬 전 은행장으로 1999년에는 경제부 장관 그리고 2001~2006년 동안 대한민국 명예영사로 활동한 바 있음. 2013년 에콰도르 대선에 출사표를 던져 유효 득표율 22.68%로, 라파엘 꼬레아 현 대통령 (51.99%)에 이어 2위를 차지함.

- 모레노와 라소 후보 포함 상위 4명의 대선 후보들, 에콰도르 24개 주별 득표 현황을 아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음.
 -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모레노 후보는 모두 15개 주 가운데서 8개 주에서 40% 이상의 투표율을 획득함.
- 이에 반해 라소 후보는 모두 11개 주에서 승리했으며, 특히 라소가 승리한 11개 주에서 모레노 후보와는 상당한 표 차이를 보임.
 - 또한, 에콰도르 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모레노와 라소 후보는 남녀 유권자들에게 각각 50% 전후 고른 득표율을 보인 반면, 여성후보자인 비떼리는 총득표수 1,54만 903표 가운데 여성 유권자들에게 57.62%로 남성 유권자 42.38% 대비 15% 이상 여성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함.

그림 2. 4명 후보 간 지역별 득표율

(단위: %)



자료 : 에콰도르 선거관리 위원회, Consejo Nacional Electoral (CNE)

- 한편, 그림 1은 모레노 후보와 라소 후보 간 지지자들의 거주 지역별 선호도를 극명하게 드러냄.
- 즉 모레노 후보는 에스메랄다스(Esmeraldas) 주 등 모두 7개 해안가지역의 주에서 승리함.
- 이에 반해 라소 후보는 아마존 지역의 6개 전체 주 가운데 쑤콤비오스(Sucumbios) 주를 제외하고 5개 주에서 선전함.
- 더욱이, 모레노 후보는 유럽, 아시아 그리고 북미 등의 재외선거(expatriate voting)에서 라소 후보를 제치고 승리함.

그림 3. 모레노 후보와 라소 후보간 주(provincia)별 승리 분포정도



자료 : Latin American Weekly Report, 23 Feb 2017, WR-17-07

2. 원인과 분석

▶ 해외 주요언론 및 선거 전문가들은 모레노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자임에도 1차 투표로 선출되지 못한 원인으로, 현 정부의 정치 프로젝트 ‘시민혁명’³⁾ (Citizens' Revolution)의 무조건적 계승, 현 정부 및 모레노 후보의 부정부패 그리고 경기침체 등을 지적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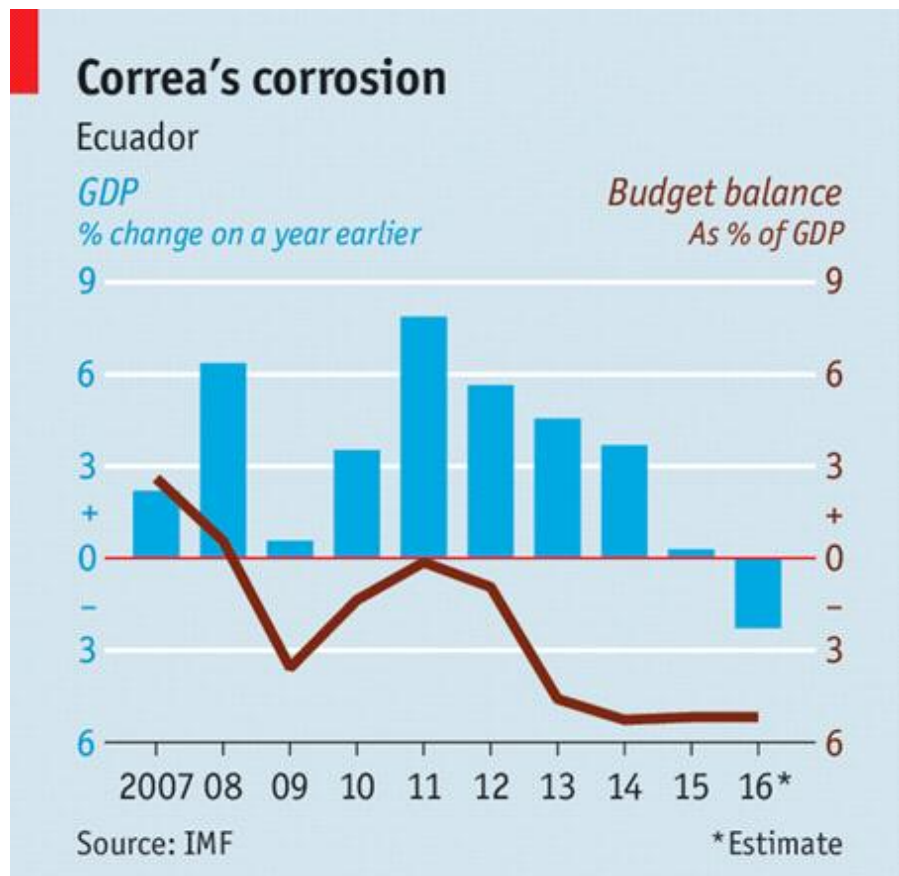
□ ‘21세기 사회주의’ 거대 담론 가운데 시민혁명의 프레임이 내재되어 있음.

- 모레노는 이 프레임 속에 연금인상, ‘모두를 위한 집(Housing for all)’ 등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한 정책적 성과 및 과오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, 현 정부의 정책 ‘추종자’임을 자처함.
-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없는 모레노 후보는 현 정부의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로 본인에 대한 정치적 신뢰도가 동반 하락함.
 - 꼬레아 현 정부가 정치권 부패척결을 내세우며 주요 인사를 해임시키는 과정 가운데 정치적 탄압 및 현지 언론사 등과의 각을 세우는 등 정치적 전횡이 일어남.
 - 아울러, 꼬레아는 미국의 음모라고 대응하지만, 브라질 건설사 Odebrecht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에콰도르 공무원들에게 3,4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이

3) ‘시민혁명’은 현 정부의 정치적 ‘DNA’로 정당 관료주의의 과거 정치시스템을 타파하고 1) 정치혁명 2) 경제혁명 3) 윤리혁명 4) 사회혁명 5) 교육보건혁명을 기치로 내세워 지난 2006년 꼬레아 정부출범 이후 지속되어온 정치적 슬로건이자 방향성임.

- 존재함.
- 더욱이, 모레노 후보가 장애인 담당 유엔특사 및 부통령 재임시 각각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드러남.
 - 뿐만 아니라, 러닝메이트인 현 부통령 호르헤 글라스(Jorge Glas)가 또한 에콰도르 석유 국영회사, 페트로 에콰도르(Petro Ecuador)의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됨.
- ‘포용적’ 경제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긍정적 ‘유산’도 있지만,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아래 그림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2014년 이래 유가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및 실업률 증가에 따른 경기불황이 모레노 후보의 대권 행보에 부정적 영향을 줌.

그림 4. 코레아 정부기간 전기 대비 GDP 성장 추이 및 GDP 대비 재정수지변동 정도



자료 : 이코노미스트 2017년 2월 18일자

- 현 정부의 이념적 정치에 대한 이율배반적 모습에 기인한 실망감으로 아마존 지역 등, 유권자들의 ‘반-코레아(Anti-Corea)’ 현상이 농후함.
- 이로 인해 모레노 여당 후보가 1차선거로 대권창출을 하지 못함.
 - 즉, 그림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모레노와 라소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역별 선호도가 극명히 구분됨.
 - 원주민 및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아마존 지역의 주4) (모두 7개 가운데 6개

- 주)에서 역설적으로 야권의 우파후보인 라소 후보가 선전함.
- 반면 에콰도르 주 가운데 부유하며 인구밀집지역인 코스파⁵⁾ (해안가) 지역의 7개 전체 주에서는 모레노 후보를 지지함.
- 이와 같은 1차 투표의 결과는, 특히 아마존 지역의 ‘대반란’은 지난 10년간 꼬레아 정부의 정치,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원주민 인권확립 그리고 자연권 헌법 제정이 실질적으로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반증함.
- 이로 인해 라소후보는 아마존 지역에서 반사이익을 득한 것으로 보임.
 - 더욱이, 2008년 아마존지역의 오레야나 (Orellana)와 빠스파자 (Pastaza)주에 걸쳐 있는 야수니 국립공원내 ITT⁶⁾ 지역의 석유채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헌한 바 있지만 이내 2013년도 이 결정을 번복하며 아마존지역의 채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점⁷⁾.
 - 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 아마존 지역의 모로나 산티아고(Morona Santiago)주에서 광물 자원개발로 빚어진 슈아르(Shuar) 원주민과 경찰 간의 대립으로 유혈사태 발생함.
 - 이로 인해 꼬레아 정부는 비상계엄의 형태인 ‘예외상태’(state of exception)를 이 지역에 발동하며 원주민의 기본권 등을 제약하는 사건이 벌어짐.

3. 전망과 시사점

▶ **오는 4월 2일 치러질 대선 결선투표는 여론조사 시 엇갈리는 상황이 전개되는 등 박빙의 승부가 전망됨.**

- 결론적으로 모레노 후보가 상기 표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유효투표수의 단 0.64%가 부족해 결선투표에서 대권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지만 결선투표는 다른 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.
- 1차 투표에서 16.32%를 득표해 3위를 차지한 중도 우파성향의 변호사 출신 의원인 신시아 비테리(Cynthia Viteri) 기독교사회당(Social Cristiano) 후보가 라소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태로 우파진영의 결집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.
 - 더욱이, 에콰도르의 수도, 끼또의 시장 출신으로 6.71%를 득표해 1차 투표에서 4위를 차지

4) 아마존 지역의 주는 모두 6개임, 쑤콤비오스(Sucumbios), 나뽀(Napo), 오레야나(Orellana), 빠스파자(Pastaza) 모로나 산티아고(Morona Santiago), Zamora Chincipe(짜모라 친치빠)

5) 해안가(Costa)지역의 주는 7개임. 에스메랄다스(Esmeraldas), 마나비(Manbi), 산토도밍고 델 로스 쌀칠라스(Santo Domingo de los Tsachilas), 로스 리오스(Los Rios), 산타 엘레나(Santa Elena), 구아야스(Guayas), 엘 오로(El Oro)

6) Yasuni ITT: 이스핑고(Ishpingo) - 탐보코차(Tambococha) - 락투티니(Tiputini)

7) 이태혁 (2016), “에콰도르의 이중성(dual identity): 중국의 등장과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개발의 정치경제적 역설(paradox)” 이베로 아메리카연구. Vol 27. No. 1. p 173-194.

한 빠코 몬까요(Paco Moncayo) 후보는 원주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념적 스펙트럼 상 라소후보와 상이한 면이 있지만 현재 라소후보에게 정책적 대화를 제안한 상태임.

- 한편, 몬까요 후보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현 정부를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으며, “모레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”이라며 언론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밝힌 상태임.
 - 작년 연말 대선 후보자별 선호도 조사 시, 모레노 후보가 37%, 라소 후보가 20% 그리고 비떼리 후보가 10%였음.
 - 공식적 선거유세 기간 동안 모레노 후보는 단 2% 정도 상승한 반면, 타 두 후보들은 각각 8%와 6% 상승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결선투표 시에도 모레노 후보의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.

▶ 라소후보가 받은 1차 투표의 ‘성적표’는 지난 10년간 현 정부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권심판의 양상임.


- 더욱이 코레아 행정부의 국정 수행 현재 지지도는 42%인 가운데, 모레노 후보는 1차대선 투표시 39.36% 득표함.
 - 이는 코레아 현 정부의 지지도가 모레노 여당 후보에 대한 득표율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.
- 한편, 본 대선은 에콰도르 국내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미 역내 및 역외정치경제에도 영향을 줌.
 - 21세기 초반부터 진행되고 있는 남미지역 ‘핑크타이드(Pink Tide)(온건 좌파 물결)’가 지난 2015년부터 우경화 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남미 정치 지형도(landscape)가 변화하고 있음.
 - 때문에 현 좌파 정부인 에콰도르의 대선은 ‘좌클릭’에서 ‘우클릭’의 ‘마지막’ 보루로서의 상징성이 있음.
- 현 에콰도르 좌파 정부는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 미국을 자본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의 프레임으로 상정한 가운데, 세계금융 자본의 접근성 제약을 중국으로 석유 수출 및 투자에 의존하는 상태임.
 - 특히, 에콰도르에 유입되는 전체 해외직접투자(FDI) 50% 이상이 중국발 자본이며 이 가운데 광물자원, 특히 석유등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음.
 - 더욱이 2010-2016년 사이 중국의 대 중남미 투자국 가운데 에콰도르가 베네수엘라 그리고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전체 3위 대상국임⁸⁾.

8) Gallagher, Kevin P. and Margaret Myers (2016) "China-Latin America Finance Database," Washington: Inter-American Dialogue.

- 하지만, 결선투표에서 국가주도정보다는 시장친화형인 라소후보가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권을 창출한다면, 중국으로 경도되었던 에콰도르의 역외 정치경제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더불어 다극화될 전망이다. **EMERiCs**

출처

- 에콰도르 선거관리 위원회 (CNE)
- Latin American Weekly Report
- 뉴욕타임즈(www.nytimes.com)
- 엘 코메르시오(<http://elcomercio.pe/>)

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